

“일방적인 관리 그만!”

조계종, 자연공법 개악 중단 및 국립공원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 사찰 소유지를 인정한 주민의 민원해소를 명분 삼아 케이 블카 건설 등 생태관광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수행환경 파괴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대해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 온 조계종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각오로 맞설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 및 국립공원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봉축을 앞두고 있으나, 환경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원 관련법은 종단 미래 정체성을 담보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10년마다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으로 사찰 피해와 폐해가 30여 년 이어지며 삼보장재의 소유·관리권을 침해해왔다”고 강

조했다.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토지는 8.8%다. 이는 해상 국립공원을 합친 통계로 육상 국립공원만의 경우 조계종 토지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금액으로는 문화재청 임대료 기준 1690억원 상당이다.

스님은 “국립공원 구역 중 경관 가치가 뛰어나거나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80~90%는 조계종 소유 토지”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불교가 1700여 년 동안 국립공원 주요 지역을 소유하고 가꿔왔고, 근래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되며 수행·문화환경을 개방했으나 정부가 이를 악용해 왔다는 것.

장적 스님은 “정부가 사찰 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관리해왔다. 사찰의 관리권은 부정하면서도 국보, 보물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책임은 사찰에 떠맡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국립공원 소유 경내지의 자주권 확보와 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계종은 정부에 △천년고찰에 대한 자연공법, 문화재 보호법, 건축법 등으로 삼중, 사중 규제의 일원화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법제도 개선 과정에 불교계 참여 △사유지의 제의 등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 △문화재 보유 사찰 경내지가 다수인 것을 감안한 관할부처 조정 △케이블카 건설 등 생태관광 사업 중단 및 자연공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장적 스님은 “대정부 요구사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등 관련부처와 면담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 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미리보는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불축위원회는 4월 5일 서울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총연습을 실시했다. 4월 26일로 예정된 연등축제를 위해 각 사찰의 연희단과 율동단은 입장 연습과 율동 연습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부처님오신날이 준비했다.

“4대강 주변 문화재 훼손 위기”

변재일 의원,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공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주변 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당)은 4월 3일 “문화재청이 문화재 심의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위원의 구성 중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속도전’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4대강

주변 1036건에 달하는 문화재가 비전문가 의견에 따라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지표조사(조사기간 1~3월)에 따르면 4대강 주변에는 제방과 제방 사이 345건, 제방 바깥으로부터 500m까지 구간에는 691건 등 총 1036건의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김진성 기자

“하나님, 당신은 제게 경찰직을 주셨습니다”

전북덕진경찰서장 공무중 기도문 낭독

경찰서 직원교육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규칙을 지키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기도문이 낭독됐던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는 4월 8일 전주덕진경찰서 이강수 서장의 종교평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3월 24일 부임한 이강수 총경은 4월 2~3일 전주덕진서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480명이 참가한 직원교육시간에 기도문을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도문 낭독 외 이 총경은 5일 전직원에게 메일로 “제가 평소 늘 읊미하고 있는 경찰관을 위한 기도문을 전해 드립니다”며 “오 하나님! 당신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직분을 제게 주셨습니다. 공

명정대함이 실천되게 하셔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도와주소서” 등 기도문 전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범불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항의에 “평소 좋아하는 경전의 글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종교차별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반문했다”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4월 셋째 주 중형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최근 개정된 공무원법에 종교평화 금지 강제조항이 없어 공직자들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평위 등 불교계는 이 서장과 관련된 부처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원인 등과 서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뉴스도 법회도 영상으로 만난다

인터넷 영상매체 ‘불영TV’ 문열어

불교계 뉴스와 다양한 자료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영상 전문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최근 문을 연 불영TV(불영.kr) 대표 김봉환은 불교계의 뉴스와 각종 행사를 물론 사찰 홍보, 법회 및 행사 중계, 성지순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영상 매체다. 이 사이트는 기존의 뉴스 중심 사이트와 영상을 결합하여 영상에 대한 비중을 훨씬 높인 것이 특징이다. 불영TV는 종단 소식과 각종

법회 및 행사 정보를 포함한 불교계 뉴스는 물론 불교관련 영상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각종 행사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봉환 대표는 “그간 불교계에는 영상과 뉴스를 함께 다루는 인터넷 매체가 없어 영상콘텐츠 축적에 소홀했다”며 “영상 시대에 맞춰 불교 영상의 질적 양적 발전을 주도하는 매체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운암 김성숙 40주년 추모재 봉행

10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서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4월 10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역의 운암 선생 묘소에서 서거 40주년 기념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을 비롯해 광복회 송병일 부회장, 국가보훈처 신영교 서울남부지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운암 김성숙 선생(대허 스님, 1898~1969)은 1919년 3·1운동 당시 봉선사 승려 신분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선민족전선연맹 선전부장 등을 지냈으며, 만해 스님 등과 함께 불교계 독립운동가 및 민족운동가로 추앙받고 있다.

글=조동성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4월 10일 국립현충원에서 봉행된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40주기 추모재에서 정부대표로 참석한 국가보훈처 신영교 서울남부지청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증흥발전

불교박람회(대구 벅스코)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증생구제와 증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업장소멸 범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범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범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림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범륜대가 범당탁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이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범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에 셋트 (1,500원×1,080명-162만원 상당)를 무상 혜택으로 드립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난중 4회 분납(대금비 별도)으로 수할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돕습니다.

■ 수작업 수량 한계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 제품명: 천불봉안범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형지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범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증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범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